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한 방향 탐색

이 원 희*

Exploring Direction through Analyzing Trends in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Field

Lee, Weonhee*

ABSTRACT

[Purpose] Phenomenological research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of study in special education in terms of philosophy or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s also increasing in fact. In order to explore directi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applying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and suggest future direction. **[Method]** From 2005 to 2019, a total of 53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were selected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t was examined how the research topics, research purposes,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backgroun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were. **[Results]** First,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applying phenomenology to philosophical theory, most of the studies have explored the meaning of special education phenomena through participants' experiences or suggested directions for support. Only four studies applying phenomenology to philosophical theory.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many studies have not been clear about the background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Interviews were mainly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showed a tendency to apply the methods suggested by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It has been found that studies that provide concrete methods for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phenomenological reduction' are very insufficient. **[Conclusion]** The direction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is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subject and purpose should be expanded based on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phenomenology. Second, a proper understanding of phenomenological reduction is necessary. Third, the hermeneutic circulation method should be applied to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Fourth, various type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should be applied.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Phenomenology,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Philosophical Background, Methodology

* 제 1저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2weonhee@hanmail.net)
Lecturer, Dep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체험)과 현상에 대한 연구로,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람베르트, 칸트, 피히테, 헤겔 등의 철학자들이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현상학은 후설로부터 시작된 20세기 현상학을 일컫는다. 후설은 현상학을 현상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생활세계(Lebenswelt)’라고 표현하였다(Husserl, 1976). 현상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체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 역시 인간을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강조하였다(Heidegger, 1979). 그에 의하면 인간은 ‘실존’이라는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계 내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탐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상학을 학문으로 정착시킨 후설에 의하면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는 학문으로, ‘판단 중지(epoché)’라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Husserl, 1976).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이근호(2007)는 현상학은 철학적 지향임과 동시에 현상학의 지향을 연구현장에 실천적인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노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상학은 철학임과 동시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현상학의 철학적 지향과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교육학(phenomen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이 등장하였다. 현상학적 교육학은 현상학의 다양한 철학과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전개된 교육학이다. 유혜령(2005)은 교육학에서 현상학적인 사유는 일회적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현상에 스며있는 교육학적 의의를 숙고해보는 연구자의 노력이기 때문에 교육현상학(phenomenology of educ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교육현상학은 현재 응용(실천)현상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현상학은 현상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생활세계와 응용현상학의 개념을 종합한 개념이다. 더불어 교육학 분야에 현상학적 철학과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교육현상의 문제를 실증주의 접근이 아닌 사태 자체에서 해명을 시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남인(2010)은 교육현상학의 차원을 경험적 교육현상학, 존재론적 교육현상학, 초월론적 교육현상학 측면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현상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관점이나 시각에 머물러서

는 안 되므로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과 영역의 연구가 상호 연관된 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후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 다양한 현상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교육현상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학과 교육 사이 대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학의 철학적 지향을 토대로 그동안 특수교육분야에서도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성애(2005)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진단 및 교육에 있어 현상학은 철학이나 방법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이론이 된다고 보고 현상학적 입장에서 특수교사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후셀 현상학에 내재된 윤리성을 토대로 장애아동의 행동관리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성애, 2007)). 다른 한편 김혜리(2013)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행동주의 접근방식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함께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 이론을 통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모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김혜리, 2015). 이러한 움직임은 현상학에 내재된 이념을 특수교육분야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현상학 이론을 토대로 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과 더불어 질적연구의 기본절차나 방법에서도 현상학적 접근은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분야에서도 연구방법 측면에서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몇 차례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학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을 탐색하거나(이숙정, 2005), 특수교육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김혜리, 2007; 진권장, 손영수, 2005). 이와 함께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는데, 강경숙과 강성중(2012)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장애학생과 성인기 장애인과 관련된 현상이나 체험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가 특수교육 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상학적 질적연구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특수교육분야에서도 2000년도 이후부터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체험연구'라는 유형으로 질적연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특수교육분야에서는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분석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질적연구 동향분석을 실시한 몇 차례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다. 먼저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질적연구 110편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21편(19%)으로 나타났다(박미화, 강성중, 2012). 학령기 장애학생과 가족대상 질적연구를 분석한 서유진과 이동성(2013b)의 연구에서는 총 57편 중 8편(14%), 장애학생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총 61편 중 3편(4.9%)이 현상학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질적연구 유형에 비해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서유진, 이동성, 2013a). 그에 비해 가장 최근 실시된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77편 중 연구주제나 목적 측면에서 현상학적 연구라고 볼 수 있는 연구는 26편(33.7%)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현상학적 연구라는 명확한 유형을 제시한 연구는 9편(5.6%)밖에 되지 않았다(이원희, 곽승철, 2015).

이후로도 특수교육분야에서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현상학적 연구방법임을 명시한 다수의 연구들이 현상을 통해 그 의미나 본질을 드러내어 참여자의 삶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료분석 시 국내·외 학자들의 분석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참여자의 경험을 요인분석 하듯이 범주화하거나 나열한 채 현상학적 연구라고 제시하고 있었다(박종영, 2017; 박은수, 임경원, 2017; 변은지, 박병도, 2018; 송인애, 오민석, 2019; 신해정, 정동영, 2016; 심유지, 이명우, 2017; 홍덕기, 전병진, 유두한, 2018). 이와 달리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한 목적과 현상학에 적합한 문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질적연구도 드물지만 몇 차례 실시되었다(신애자, 김용수, 2017; 원길재, 이병인, 2019; 이원희, 곽승철, 2017, 이원희, 곽승철, 2018). 종합해 보면 특수교육분야에서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현상학에 대한 방법론적 특성을 올바르게 적용한 연구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현상을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의미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문제는 교육학계를 비롯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는 다양한 학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배상식, 2012; 이남인, 2019; 정대현, 이현정, 2019). 이러한 방법론적 일원화 경향은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선행연구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국내·외 학자의 몇 가지 고정된 연구기법으로 환원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상학에 대한 철학적 지향과 방법론적 특성을 적용한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다양한 특수교육현상을 드러내어 교육현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현상학자들의 철학을 토대로 특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후설과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 여러 현상학자들의 철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한 연구는 원길재와 이병인(2019)의 연구, 이원희와 곽승철(2017; 2018)의 연구, 이원희와 양승국, 그리고 곽승철(2019)의 연구로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우리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특수교육 연구자들이 현상학자들의 방대한 철학적 사상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수교육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특수교육 구성원들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상학 특유의 철학적 지향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방법론적 원리를 바르게 알고 질적연구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 적용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적용현황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먼저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이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에서 어떻게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함으로써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

현상학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학문적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현상학은 본질과 의미의 논리에 대한 객관적 탐구로, 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기술이나 분석으로, 초월적 자아에 대한 사변으로, 생생하게 체험되는 실존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Thévenaz, 1966). 이렇듯 현상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 현상학은 인간과 세계, 의식과 존재, 그리고 의식 자체의 반성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현상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본질을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설은 인간의 이성을 건강하게 해줄 철학의 개혁을 통해 근대 유럽문화와 그 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usserl, 1976). 하이데거 역시 이성에 의해 감춰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기술문명이 갖고 있는 한계와 위기를 밝히려 했다(박승익, 2013). 지각을 강조한 메를로퐁티는 경험의 일차적 형태인 지각의 체험을 인식의 근원으로 상정해두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과 세계, 의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양해립, 2003). 그밖에도 셸러, 레비나스, 샤르트르 등 여러 현상학자들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대표 철학자인 후설과 하이데거, 그리고 메를로퐁티 현상학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현상학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현상학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한 후

썰과 하이데거, 그리고 특수교육분야에서 다루어 볼 가치가 있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대해 철학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상학은 ‘현상’과 ‘학’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상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그 어원을 추적해보면, 현상(phénomène)은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동사 ‘phainesthai’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Heidegger, 1979). 이를 사람들은 흔히 ‘나타남’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상은 단순한 나타남이라기보다는 현 사태를 그 자체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어떤 것과 함께 드러냄, 즉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드러냄을 뜻한다. 그렇다면 ‘학’으로서의 현상학이 어떠한 배경으로 대두되었는지 살펴보면, 20세기에 접어들며 현대인은 참다운 인간으로서 생존을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그리고 나치주의 대두 등의 사건은 이러한 위기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후썰은 이러한 위기를 현대과학이 발전하며 인류의 삶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데 있다고 보았다(Husserl, 1976). 현대과학이 위기에 부닥친 것은 19세기 중후반 실증적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실증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비롯되었다. 후썰은 이러한 실증주의가 철학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며, 나아가 이로부터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가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실증주의가 참다운 철학이 지녀야 할 ‘보편성’과 ‘엄밀성(사태 적합성)’,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참다운 철학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이남인, 2004). 따라서 후썰이 추구하는 현상학은 보편성과 엄밀성을 동시에 지니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보편학이 철학의 주제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면, 엄밀학은 철학의 방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은 현상학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데 대표적인 개념이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 부분은 방법론에 해당하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이 장에서는 보편학으로서의 현상학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상학은 존재론의 주제에 접근하는 양식이자 존재를 드러내면서 규정하는 양식이다(Heidegger, 1979). 그에 의하면 존재론은 오직 현상학으로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상학적 개념의 현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존재의 의미, 존재자의 존재, 존재의 변양들과 파생태들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열어 밝히고 스스로를 선사하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을 통해 존재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에 비해 메를로퐁티는 존재라는 말 대신 실존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실존의 토대는 주체로서의 몸이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몸 현상학’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몸과 세계의 상호 교환성을 강조하며 그 중심을 몸에 두고 몸을 주체적인 위치로 보기 때문이다. 몸과 지각을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는 과정에서 메를로퐁티는 ‘세계-로의-존재’, ‘세계’, ‘몸’, ‘지각’, ‘지향성’, ‘몸의 시간성’, ‘몸의 공간성’과 같은 개념을 중요시하며 몸의

담론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양혜림, 2003).

이러한 점에서 지향적 의식을 통해 초월적인 존재 세계의 의미를 밝히려 했던 후설과 존재 그 자체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의식의 지향성을 강조한 후설과 몸의 지향을 강조한 메를로퐁티의 철학도 기본적으로는 현상학의 지평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고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상학은 존재와 세계 자체를 사심 없이 바라보는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상학적 방법론의 특징 역시 존재 성격에 따라 방법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현상학자들이 주장하는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과 현상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상학이 내세우는 주요이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후설은 '사태 자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현상학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로 현상학에서는 일종의 행동강령과도 같다. 그런데 '사태 자체'란 말처럼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현상학에서는 동일한 사태라도 다른 의미로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 까닭은 바로 그 사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즉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의식에 따라 다르게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본질적인 특징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향성은 "의식은 언제나 의미를 지닌 그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다(이남인, 2004)"라는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만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존재자(대상)와 그를 향한 의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본질 구조에서 독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후설은 이러한 개념을 노에시스(Noesis)와 노에마(Noema)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서의 지향성을 '사유'라는 의미인 희랍어 명사를 빌어 '노에시스'라 하고, 의식이 향하고 있는 '그 무엇'인 지향성의 대상을 '사유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에마'라고 하였다(이남인, 2004).

후설의 주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사태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에 따라 하나의 대상이 각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 현상학의 이러한 이념은 질적연구의 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적 기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상학은 양적연구의 배경 철학인 실증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철학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존재, 인식, 윤리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설명보다는 이해를 중시하며 노에마-노에시스 상관작용을 다룬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사이, 의식과 대상 사이에서 상호주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양자 사이의 지향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데 앞서 살펴본 현상학의 이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질적연구에서는 학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관적인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후설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기 위하여

사태 자체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현상의 의미는 항상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자각하는 태도의 중요함을 강조한 의미로서 질적연구의 기본적 태도이다.

이와 같이 후썰이 당시의 심리학주의자와 상대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면,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의 역사 전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하이데거는 서양철학의 전체적인 역사를 형이상학과 존재론의 역사, 혹은 같은 의미에서 존재론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해주는 그 무엇에 대한 탐구로 기존의 존재론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았다(박승익, 2013). 하이데거는 후썰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상학을 이해하였다. 후썰이 엄밀한 철학의 꿈을 꾸었다면 하이데거는 자기를 내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사유의 방법으로 현상학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의 탐구 대상은 존재자들이며, 인간만이 오직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자로 보고 이것을 '존재론적 차이'라고 불렀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존재론적 논의는 인간의 삶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파악되는 인간, 즉 실존을 문제시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존재자와는 달리 인간의 존재인 실존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존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이해를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다(이남인, 2004).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부세계에 간혀 살아가는 존재자가 아니라, 실존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존재에 대해 근원적으로 열려있는 존재자인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의 측면을 '현존재(Dasein)'라고 불렀다(Heidegger, 1979). 현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자'로 인간의 존재방식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현존재'라는 표현은 독일어 'Dasein'이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Dasein'은 'da'와 'sein'으로 나눌 수 있는데, 'da'는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지닌 '거기'를 의미하고, 'sein'은 존재, 즉 있음을 의미한다. 'Dasein'이라는 말은 'sein(존재)'가 'da(거기)'에 드러난다는 뜻이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현존재'라고 한 것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에게서 비로소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Heidegger, 1979; 박승익, 2013).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실존인데, 우리는 인간 현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존재방식, 즉 실존방식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를로퐁티에게서 실존은 나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세계에의-존재'이기에 항상 넓게는 세계와, 좁게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조광제, 2004). 인간의 의식 활동은 몸으로 하는 활동이며 나아가 몸을 통한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진리를 찾아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본질에 대한 연구이다. 현상학의 궁극적 목적은 본질을 규정하여 이 본질을 실존에 되돌리는 것이며 인간 존재와 인간의 세계를 그 현사실성에 근거해서만 이해하려 한다(강미라, 2011). 그러한 현상의 본질은 실존과 존재의 사실성에서 찾아야 하며 그

본질을 찾기 위한 방법이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후설의 이론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몸을 다소 주변부에 두고 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에 몰두하는 후설과 달리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경험은 몸과 함께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현상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철학사상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았다. 현상학자들의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후설이 현상학을 모든 학문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철학적 이론’으로 생각했다면 하이데거는 현상학을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헤쳐 밝혀줄 수 있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이해하였다(박승익, 2013). 이와 달리 메를로퐁티는 모든 의미의 원천은 세계인데 그 의미는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몸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려는 현상학의 기본정신을 이어나가려는 태도는 현상학자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은 다르지만 현상학자들은 그들이 살아간 시대의 문제와 대면함으로써 인간의 주관성을 회복하고 학문과 삶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자 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지평은 무한히 넓으나 연구자나 참여자의 경험이나 체험을 토대로 한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남인(2019)은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다시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본질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로 구분하며, 그동안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연구는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라고 하였다. 특수교육분야 또한 이러한 흐름을 보이며 많은 경우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또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로 지칭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는 체험적 의미나 실존적 의미를 연구하고 이 의미를 깊이 있게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반 매년(1997)에 의하면, 모든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생활세계와 세계구조를 일상적인 관계와 상황에서 경험한대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간호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연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절차는, 연구준비과정,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하는 과정, 자료 분석과정, 글쓰기 과정 등으로 진행되어 다른 질적연구 유형의 체험연구인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생애사, 해석학적 연구와 절차적인 부분에

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유형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현상학자들이 전개해나간 현상학적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이남인, 2014). 현상학적 방법은 모든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윤리론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적절한 방법론적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원리를 구현하는 데 유의한 도구들인 노에마-노에시스 상관작용, 판단중지와 환원, 본질직관, 지향성과 구성,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현상학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To the things themselves)’라는 구호에 근거하여 현상학적 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현상이나 존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지양한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가능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이론적인 전제나 가설에 근거해 사태를 해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어떤 현상을 기술할 때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보이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상학의 주된 탐구대상은 의식체험을 기반으로 존재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식의 대상인 노에마를 절대화하고 객관화함으로써 주체 밖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인 노에시스를 주목하며 이 둘의 상호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현상학에서는 무엇보다 존재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 세계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계를 가장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 현상학적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현상학적 태도란 어느 특정 존재영역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총체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박인철, 2013).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기 위한 현상학적 방법이 바로 ‘판단중지(Epoché)’와 ‘환원(Reduktion)’이다. 판단중지는 자연적 삶의 태도,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고 현존하는 자연적 세계에 괄호를 치는 것이다.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중지는 외부 대상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반성적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중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초월론적 의식(transzendentes Bewusstsein)’이다. ‘초월론적’의 독일식 표현은 ‘transzendental’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선험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세계를 마주해서 겪는 경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묻는 태도를 말한다(박승익, 2013). 후설의 철학에서 판단중지는 곧 ‘초월론적 의식’으로의 ‘환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박인철, 2013). 하지만 이 개념은 현상학자들로부터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되어 보다 이해가 쉬운 ‘태도변경(Einstellungsänderung)’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이남인 2012: 2014). 여기서 태도란 어떤 하나의 주체나 다수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관심에 따라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통일적인 관점을 뜻한다. 달리 말해 다양한 태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세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태도들은 새로운 태도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의 태도변경이 바로 현상학적 환원인 것이다.

자연적 태도에 대한 태도변경과 더불어 현상학의 방법론을 특징짓는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은 ‘본질직관(Wesensschauung)’이다. 본질직관의 방법은 우선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임의의 한 개별적 대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후설의 철학에서 본질직관은 기본적으로 개체직관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선정된 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개별적 대상과 관련된 무수한 변양체(Variante)를 상상 속에서 자유로이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상작용 속에서 산출된 다양한 대상의 모사물 내지 변양체들 속에서 공통되고 합치되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합치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포착한다. 이렇게 파악된 것이 바로 이 대상의 본질이다(박인철, 2013). 본질직관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태도에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태도로 전환하는 태도변경을 의미한다. 앞서 판단중지와 환원을 태도변경으로 이해하였듯이, 본질직관 역시 일종의 태도변경이므로 이것 역시 환원이라 불린다(이남인, 2014). 어떤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제적인 시선이 그 본질에 포섭될 수 있는 모든 개별적 대상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적 절차가 ‘자유변경(freie Variation)’이다. 자유변경은 어떤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 대상으로부터 이들과 비슷한 여러 개별적 대상들을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변경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판단중지를 통해 세계를 배제하여 초월론적 의식을 드러냈다면, 초월론적 의식은 이제 배제된 세계의 존재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의식과 세계와의 연관성이 밝혀지는데,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ät)’에 근거해 의식이 세계와 연관을 맺는다고 본다. 후설은 앞서 살펴본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에 따른 지향적인 의식의 대상형성 작용을 ‘구성(Konstitution)’이라고 하였다. 구성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초월하여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는 작용으로, 인간의 지각과 사유, 언어, 그리고 행동은 모두가 개념적이고 범주적이므로 이 모두가 구성의 과정이며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인, 2004). 이러한 지향성과 구성적 기능은 자연적 태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초월론적 환원을 통한 반성적 태도인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해명될 수 있다.

이남인(2004)은 후설이 말하는 ‘구성’의 의미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해석(Auslegung)’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론적 의미는 해석이라고 하였다. 해석은 이해를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해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자기 것으로 한다(Heidegger, 1979). 세계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토대로 수행되는 해석과정 속에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의 구조가 존재하며, 대상에 대한 선지식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해석과정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지식으로 바뀌어간다(이남인, 2004). 세계(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체에 대한 이해도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상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상학의 방법론적 도구들을 간략하게 살펴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들이 연구에 적용되어야 현상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상학적 환원이나 해석에 대한 내용은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기술되어야 하며, 연구과정 전체에서 사용한 전체와 부분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서도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논문 검색 및 선정 방법

특수교육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실시된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이나 2005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희, 곽승철, 2015).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 역시 2005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논문은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연구로 제한하였다.

해당 논문 검색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특수교육’, ‘장애아동’, ‘장애학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검색어를 각각 입력하고, 이와 함께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체험연구’ 등 연구방법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해당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을 제외한 후 자료수집 기간 내 이루어진 연구 47편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학계 이외 타 학계에서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게재됨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서유진, 이동성, 2013a; 서유진, 이동성, 2013b, 이원희, 곽승철, 2015). 선행연구 문헌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 ‘상담’, ‘사회복지’ 등의 검색어와 연구방법에 대한 검색어를 통해 추가로 5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통해 누락된 논문 2편을 확인하여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논문은 총 53편으로 이를 최종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논문들은 모두 제목 및 초록을 통해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이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인지를 확인하였다. 제목이나 초록에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체험연구’라는 명시가 없더라도 서론이나 연구방법에서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이나 자료분석 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고 기술한 연구들은 분석 대상 논문으로 포함하였다.

2. 분석 준거

이 연구의 분석준거는 연구목적에 따라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적 질적연구 두 가지 틀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 유형과 수, 연구기간, 진실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면, 먼저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을 적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목적, 철학적 배경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방법론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관계있는 방법론적 배경, 자료수집,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 별 분석 준거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거나 분석 논문을 검토한 결과에 의해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준거는 표 1과 같다.

〈Table 1〉 Criteria for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Field

Division	Analysis Criteria
Phenomenological Theory of Phenomenology	Research Topic, Research Purpose, Philosophical Backgroun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Methodological Background,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1)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 분석 준거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 중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 적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주제, 연구목적, 철학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주제는 분석대상 논문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아교육분야 현상학적 연구를 분석한 정대현과 이현정(2019)의 연구주제 틀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의 주제는 관계, 삶과 문화,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방법, 교육활동, 기타로 구분되었다. 또래관계, 친구사귀기, 이성 교제 등이 주제일 경우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교직경험, 참여자의 생활세계와 문화가 주제일 경우 ‘삶과 문화’, 특정 장애학생이나 자녀의 교육과정 중 경험이 주제일 경우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통합교육, 장애영역 별 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 특정한 교육방법이 주제일 경우 ‘교육방법’, 교육실습이나 특정 교과목 지도, 특정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학교 등의 주제는 ‘교육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목적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험의 의미 탐색, 현상에 대한 의미와 이해, 현상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요구로 나누어졌다. 특정한 경험을 드러내거나 그 경험을 토대로 의미, 구조, 본질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경험의 의미 탐색', 특수교육 현상에 대한 의미나 참여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추구할 경우 '현상에 대한 의미와 이해', 특수교육 현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려움을 드러내어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현상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요구'로 분류하였다. 그 이외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변화를 알아볼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셋째, 철학적 배경은 분석 대상 논문에서 연구자가 구체적인 철학적 배경을 제시한 내용과 해석 시 사용한 이론을 토대로 '후설의 생활세계 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 '반 매년의 실존체계'로 분류하였다. 철학적 배경이 중복될 경우 우선으로 사용한 이론을 제시하고 나머지 이론은 ()속에 표기하여 중복빈도 처리를 하였다.

2) 현상학적 연구방법 분석 준거

방법론으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 적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법론적 배경, 자료수집,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현상학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사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방법론적 배경을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부분에 따라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로 분류하였고, 어느 부분에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시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자료수집 방법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의 경우 개별면담, 포커스그룹 면담, 전화나 메일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면담과 관찰, 면담과 문서자료 수집, 관찰과 문서자료 수집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중복빈도 처리하였다.

셋째, 자료분석 역시 분석 논문에서 실제 적용한 방법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연구자가 부호화, 범주화 방법을 적용하였다고 기술하거나 구체적으로 분석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범주화하여 결과를 기술했을 경우 '부호화, 범주화', 외국학자나 국내 학자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경우 '학자 인용', 그 이외 연구자들이 실제 기술한 '지속적 비교분석법', '해석학적 순환'으로 분류하였고,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을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넷째,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이남인(2019)이 제시한 연구절차와 방법 작성 예시를 참고하고, 분석대상 논문 중 방법론적 배경, 연구 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제시하였을 경우 '연구자 선 이해', 선입관 배제, 괄호치기, 판단중지를 언급한

경우 ‘판단중지’, 환원, 태도변경, 자유변경, 본질직관 등을 언급한 경우 ‘현상학적 환원’, 자료 해석에서 구성과 해체를 시도하였거나 순환을 실시하였다면 ‘해석학적 순환’, 그 이외 연구자의 지향성을 언급하거나, 존재물음, 반성적 태도를 언급할 경우 ‘기타’로 구분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제시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신뢰도 확보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와 동료 연구자가 별도로 몇 차례에 걸쳐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한 후 비교하였다. 총 5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내용 분석은 연구자가 EXCEL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 분석하였고, 동료 연구자가 재검토하여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구자가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특수교육분야에서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매 해 1~2편씩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3편, 2014년 7편, 2015년 5편, 2016년 2편, 2017년 11편, 2018년 8편, 2019년 6편, 총 53편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분석 준거 틀에 의해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 적용 현황

이 장에서는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이 논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목적,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 적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학술지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 53편에 대한 연구주제는 표 2와 같이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수용경험 및 사회적응, 정체성 형성, 장애학생 부모의 생활세계나 역할,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어려움, 특수교사의 교직경험을 통한 성장 등 참여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가 16편(3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수교사를 비롯한 부모, 기관 종사자가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중 겪은 경험, 즉 교수수정, 직업교육, 교과교육, 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다룬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13편(24.5%)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습, 방과 후 학교, 독서치료 등 특정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다룬 '특수교육활동'에 대한 연구가 11편(20.8%), 대안학교, 거점학교, 평생교육 등 '특수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7편(13.2%)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장애학생 상담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가 1편(1.9%)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u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by Research Subject

Division	~ 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9	Total(%)
Relation	1	-	1	3	5(9.4)
Life and Culture	2	2	6	6	16(30.2)
Special Education Course	1	3	3	6	13(24.5)
Special Education Method	3	-	-	4	7(13.2)
Special Education Activities	-	1	4	6	11(20.8)
Other	-	-	-	1	1(1.9)
Total	7	6	14	26	53(100.0)

두 번째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특수교육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어려움을 토대로 지원을 요구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22편(41.5%)으로 가장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교육구성원의 경험을 토대로 가족지원, 장애학생 지원, 교육활동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이나 학생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고 그 경험의 의미나 구조, 본질을 탐색하는 연구가 20편(27.7%)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존재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9편(17.0%)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이외에도 임상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와 모래놀이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도 2편(3.8%) 있었다.

〈Table 3〉 Statu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by Research Purpose

Division	~ 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9	Total(%)
Exploring the Meaning of Experience	3	4	6	7	20(37.7)
The Awareness of Phenomenon & Support Needs	4	1	6	11	22(41.5)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 Understanding Existence	-	1	1	7	9(17.0)
Other(Change)	-	-	1	1	2(3.8)
Total	7	6	14	26	53(100.0)

위와 같은 연구주제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연구자들이 적용한 철학적 이론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총 53편의 논문 중 현상학을 철학적 배경으로 적용한 연구는 4편이었다. 2017년 후설의 생활세계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을 연구 배경으로 적용한 연구가 1편, 2018년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을 적용한 연구가 1편, 2019년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과 반 매년의 네 가지 실존체계를 함께 적용한 연구가 1편, 반 매년의 네 가지 실존체계를 적용한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 4와 같다.

〈Table 4〉 Application Status of Phenomenological Philosophical Theory

Division	2017	2018	2019	Total
Husserl's Life World Phenomenology	1			1
Heidegger's Ontological Phenomenology	(1)	1		1(1)
Merleau-Ponty's Body Phenomenology			1	1
Van Manen's Existing System			1(1)	1(1)
Total(Overlap)	1(1)	1	2(1)	4(2)

* ()안의 숫자는 중복되는 이론 사용 시 중복빈도 처리한 사례임.

2.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적용 현황

이 장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법론적 배경 기술 현황,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른 방법론적 배경을 기술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에서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한 배경을 간단하게 기술한 연구는

34편(64.1%)이었으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19편(35.9%)으로 나타났다.

〈Table 5〉 Described Status of Methodological Background

Division		~ 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9	Total(%)
Presented	Introduction	2	3	2	5	12(22.6)
	Method	3	1	6	11	21(39.6)
	Result	1	-	-	-	1(1.9)
Not Presented		1	2	6	10	19(35.9)
Total		7	6	14	26	53(100)

자료수집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면담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면담을 이용한 경우가 51편(96.2%), 포커그룹 면담을 사용한 경우도 3편(5.7%)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편은 개별면담과 포커그룹 면담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추가 면담의 경우 전화나 메일을 이용하는 사례가 6편(1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참여)관찰을 실시한 연구는 11편(20.8%)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면담과 관찰 이외 각종 문서자료를 수집한 연구는 14편(26.4%)으로 나타나 주로 면담을 위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tatus of Data Collection Method(Display Duplicate Frequencies)

Division		~ 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9	계(%)
Interview	Individual	7	6	14	24	51(96.2)
	Focus Group	-	-	-	3	3(5.7)
	Telephone, Mail	-	1	2	3	6(11.3)
(Participation) Observation		2	1	1	7	11(20.8)
Document Material		2	3	1	8	14(26.4)
Total		11	11	18	45	85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사용한 분석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연구가 35편(66.0%)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학자 중 지오르지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15편(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콜라지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도 6편(11.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스타카스의 분석방법 4편(7.5%), 케이베일, 반 캄, 기타 국내·외 학자의 분석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그 이외 범주화와 부호화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5편(9.4%),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한 연구가 3편(5.7%)으로 나타났다. 해석학적 순환을 실시한 연구는 3편(5.7%),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명확한 분석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연구가 7편(13.2%)으로 나타났다.

<Table 7> Status of Data Analysis Method

Division		~ 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9	계
Categorization, Encoding		2	-	1	2	5(9.4)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	-	1	2	3(5.7)
Scholar Quotation	Colaizzi	1	1	2	2	6(11.3)
	Giorgi		2	7	6	15(28.3)
	Kvale	2	-	-	-	2(3.8)
	Moustakas	2	1	-	1	4(7.5)
	van Kaam	-	-	1	1	2(3.8)
	Other	-	-	1	5	6(11.3)
Hermeneutic Circulation		-	-	-	3	3(5.7)
Other(Nvivo Etc)		-	2	1	4	7(13.2)
Total		7	6	14	26	53(100)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기술하거나 적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선입관 배제, 괄호치기 등 판단중지와 연관된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6편(11.3%), 태도변경, 자유변경, 본질직관 등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9편(17.0%)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해석학적 순환 3편(5.6%), 반성적 태도, 지향성, 존재물음 등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3편(5.7%), 연구자의 선 이해를 기술한 연구가 1편(1.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연구방법 적용에 대해 아무런 기술이 없는 연구는 37편(69.8%)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8> Application Statu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Display Duplicate Frequencies)

Division	~ 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9	Total(%)
Researcher's Preunderstanding	-	1	-	-	1(1.9)
Suspend Judgement(Bracket)	1	-	1	4	6(11.3)
Phenomenological reduction (Attitude Change Etc)	1	1	2	5	9(17.0)
Hermeneutic Circulation	-	-	-	3	3(5.6)
Other(Directivity, Reflective Attitude Etc)	-	-	1	2	3(5.7)
Not Presented	5	5	11	16	37(69.8)
Total	7	7	15	30	60

IV. 논의 및 제언

최근 특수교육분야에서는 질적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현상학 고유의 철학적 배경 및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질적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 동향을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향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 적용 방향 탐색

먼저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을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목적, 그리고 철학적 이론 적용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주제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 삶과 문화,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 방법, 특수교육활동, 기타로 분류되었다. 이남인(2010)은 교육 현상학의 연구영역으로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경제, 교육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체험 및 분석 대상 또한 의식, 신체, 정서, 의지, 판단, 생활세계 및 세계의식, 역사성, 공간체험, 시간체험 등 다양한 차원과 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육 현상학의 주제가 다양함에도 특수교육분야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는 삶과 문화,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활동에 40편(75.5%)으로 치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과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의 주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학자들의 기본적인 이념을 알 필요가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대상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활세계가 일차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 인간의 의식과 대상(세계)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한다.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과 비슷하게 하이데거는 세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는 세계-내-존재로서 삶의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존재에 관심을 두며, 현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와 실천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인간의 몸이 거주하고 참여하는 생활세계 속에서 각 상황에 처한 삶의 실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특수교육분야 연구주제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특수교육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세계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현상과 관련된 존재, 즉 특수교육구성원들의 교육현상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장애를 가진 존재자에 대한 이해, 존재자의 몸과 세계의 관계 등 특수교육구성원의 의식과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현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참여자의 생활세계와 대상(존재)에 대한 이해, 장애학생의 몸을 통한 실존방식, 동일한 세계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 등 현상학의 주요이념을 연구주제로 포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목적 측면에서 이남인(2010)은 응용현상학의 한 분야인 교육현상학의 차원을 경험적 교육현상학, 존재론적 교육현상학, 초월론적 교육현상학으로 구분하였다. 경험적 사실로의 교육현상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할 시 경험적 교육현상학, 교육현상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적으로 할 시 존재론적 교육현상학, 자연적 태도가 아닌 초월론적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분석하면 초월론적 교육현상학으로 구분하였다. 특수교육분야에서 실시된 연구들의 목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경험의 의미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험적 교육현상학에 속하는 연구가 20편(37.7%)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경험의 구조나 본질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였지만 보다 자세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험의 구조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단순히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머물고 있었다.

이와 달리 현상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를 통해 참여자의 존재 이해를 목적으로 한 존재론적 교육현상학 연구가 9편(17.0%)으로 나타났다. 이원희(2017)는 특수교육분야에서 존재론적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 결과를 볼 때 이후 특수교육분야에서도 존재론적 현상학적 연구가 점차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재론적 교육현상학에 포함된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특수교육과 생활세계에 대한 의미를 사유하거나(이원희, 박승철, 2017; 이원희, 박승철, 2018), 참여자의 체험을 통해 교육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권희연, 이옥인, 2019).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통해 교직의 의미와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고(이원희, 양승국, 박승철, 2019), 특정 장애인이 갖는 다양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자 하였다(신애자, 김용수, 2017; 홍덕기, 전병진, 유두한, 2018). 이와 같이 경험적 교육현상학과 존재론적 교육현상학에 포함된 연구들은 현상학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없더라도 참여자의 체험을 통해 현상의 의미나 본질을 탐색하고 존재이해에 다가가고자 함으로써 연구주제나 연구목적 측면에서 현상학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목적에서 두드러진 점은 교육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비교하거나 이를 통해 지원방향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들이 22편(41.5%)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범주화하여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교육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교육현상의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해명하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자에

대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참여자의 경험을 나열하여 교육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연구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분야에서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총 53편 중 4편(7.5%)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원희와 곽승철(2017)의 논문에서는 후설의 생활세계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을 철학적 배경으로 생활세계의 교육적 의미를 성찰하였다. 또 다른 이원희와 곽승철(2018)의 연구 역시 하이데거가 제시한 ‘사이-나눔’, ‘공간-마련’, ‘세움-몰이’ 등 현상학 개념을 통해 교육의 진리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드러내고 특수교육의 의미를 사유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원길재와 이병인(2019)은 전통 현상학자는 아니지만 교육영역에서 실천현상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반 매년의 체험된 시간, 공간, 신체, 관계의 네 가지 실존체를 토대로 장애유아의 또래관계를 현상학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비슷하게 이원희와 양승국, 그리고 곽승철(2019)의 연구에서도 반 매년이 제시한 생활세계의 기본구조인 네 가지 실존체와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을 토대로 지체장애가 있는 한 특수교사의 생활세계를 통해 교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상학자들의 철학을 교육현상에 적용한 연구로써 질적인 우수성을 떠나 철학과 교육학의 만남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소수이지만 특수교육분야에서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 대표적인 현상학자들의 철학을 토대로 수행한 질적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특수교육분야에서 순수현상학을 토대로 실시한 질적연구는 그리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상학이라는 학문의 지경이 워낙 넓고 난해하지만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이 특수교육분야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구체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김성애, 2005; 2007; 김혜리, 2013; 2015). 사태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현상학은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나 교육현상에 대한 시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분명 의미 있는 철학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특수교육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적합한 연구주제와 연구목적 선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과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현상학자들의 철학을 토대로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설의 생활세계 현상학은 특수교육구성원의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특수교육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존재, 인식, 윤리 등을 근거로 특수교육구성원의 지향성과 실존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은 존재와 교육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를 가진 존재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하이데거

제시한 '탈-존(Ex-sistenz)', '현존재(Da-sein)', 염려(Sorge), 고려(Besorgen), 배려(Fürsorge) 등의 개념을 교육현상에 적용하여 특수교육에서 어떠한 사유를 하여야 하는지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교사들의 신체적 지향성과 몸을 통한 지각, 그리고 체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학자들의 이론은 특수교육분야에서 다양한 교육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세계 내 존재인 타자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경험론적 교육 현상학에 치중했던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를 존재론적 교육현상학과 초월론적 교육 현상학으로 연구주제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현상학적 연구방법 적용 방향 탐색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방법론적 배경 기술,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게 된 방법론적 배경을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제시한 연구는 34편(64.1%), 전혀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19편(35.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법론적 배경을 제시한 연구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특정한 경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인식을 알아보거나 교육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였다고 제시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순히 면담방법을 활용하거나 질적 연구접근을 하였다고만 기술하며 현상학적 연구라고 명시한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연구주제에 맞는 방법론의 적용은 질적 연구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배경은 서론에서 간단하게 제시하고 연구방법 중 연구설계나 방법론적 배경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특수교육분야에서는 방법론적 배경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기보다는 서론이나 연구방법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한 연구가 많았다. 가능한 서론에서는 연구주제 및 목적과 대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한 이유를 기술하고 연구방법에서 보다 명확한 방법론적 배경을 기술한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면담만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매우 많았다. 연구현장에서 참여자에 대한 관찰을 실시한 연구는 11편(20.8%), 사진이나 동영상, 연구자 일지 등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서자료를 수집한 경우는 14편(26.4%)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수치는 참여관찰 비율이 8%에 해당하는 이원희와

곽승철(2015)의 연구와 비교해서는 좀 더 증가한 수치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에 대해 풍부한 기술을 통해 그 체험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이근호, 2007). 체험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한 간접 체험뿐 아니라 연구자의 세계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는 직접적인 체험, 즉 참여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장기간 참여자의 삶에 머물며 그들의 생활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관찰이 면담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타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여자에게는 긴장과 함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자가 반성적 태도를 취하기 위해 연구자일지나 성찰일지를 기록하고, 참여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기물을 활용하여 면담과 관찰에서 얻지 못한 자료를 수집하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여러 학자들의 분석방법을 따르는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여러 분석 방법 중 국내·외 학자들의 분석방법을 인용한 연구는 35편(66.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자들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는 지오르지로 15편(28.3%), 그 다음 콜라지가 6편(11.3%)으로 나타났다. 지오르지는 현상학적 심리학 분야에서 후설 현상학 정신에 입각해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실시한 학자이며, 콜라지 역시 현상학적 심리학자로 분류할 수 있다(이남인, 201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학자 모두 연구주제에 따른 그들만의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과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연구 전체에서 현상학적 환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분석 단계에서만 이 학자들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현상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남인(2019)은 지오르지의 체험연구 방법은 체험의 본질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므로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아니라 본질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연구가 대부분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잘못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질적 연구자들은 기존 학자들의 분석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질적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선입관 배제, 괄호치기, 판단중지, 자유변경, 본질직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상학적 환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앞서 현상학적 환원은 태도변경이라는 보다 쉬운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남인, 2012; 2014). 특수교육분야에서 이와 같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기술한 연구는 15편(2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현상학적 환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제시한 연구는 5편(9.4)이었으며,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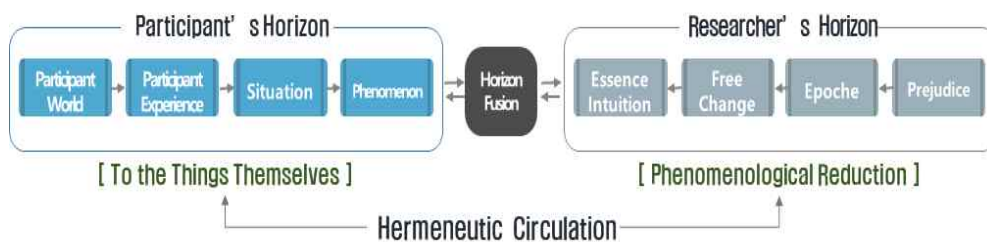
연구에서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판단중지와 환원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기술만 있었다. 현상학적 환원 이외 연구자의 선 이해나 지향성을 제시하거나 반성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연구는 4편(7.6%)이었으며, 해석학적 순환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3편(5.7%)으로 나타났다. 이남인(2019)은 현상학적 질적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에서 자료해석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순환의 과정을 보다 상세히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는 무엇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즉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특수교육분야에서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현상학적 연구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판단중지나 태도변경 등 현상학적 환원과 관련된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환원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 연구자들에게 방법적 이해를 어렵게 하지만, 사실 현상학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사태들을 조심스럽게 뒤따라 숙고하는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eidegger, 2000).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생각들로 사태들을 성급하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태들을 신중하게 음미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태도는 대부분의 질적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로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바른 이해가 있다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도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질적연구에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개별지평과 세계지평을 넘나들며 해석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 과거와 현재의 연결, 텍스트와 현장 사이,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 사이를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자료를 구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의 반복이다(이원희, 2017). 그러므로 면담만을 활용하여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학자들의 분석방법을 그대로 따라서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식을 드러내고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참여자의 삶에 보다 가까이 들어가는 관찰이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자료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와 동료검토를 실시하는 과정 또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연구과정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분야 질적연구에서 현상학적 환원과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김경민(2016)과 이원희(2017)의 박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면이 제한된 학술지에서 이러한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수행한 현상학적 방법을 도식을 통해 보다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원희와 곽승철(2017)의 연구에서 현상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현상학적 환원과 해석학적 순환 방법을 활용한 연구과정을 제시한 사례이다. 이러한 도식을 통해 연구자가 적용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독자들이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질적연구에서 추구하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지평융합이 지속적인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Figure 1> Research Cases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유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특수교육분야의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경험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이남인(2019)은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유형으로 현상학적 셀프연구, 현상학적 사례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수교육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질적연구들의 주제와 목적을 살펴보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다. 현상학에서는 의미를 얻는 것은 현상의 맥락이나 지평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체험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될 경우 현상학적 셀프연구, 특정한 특수교육 현상에 대한 사례가 중심일 경우 현상학적 사례연구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현상에 대한 특수교육구성원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현상학적 비교체험 연구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연구주제나 연구주체에 따라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유형을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질적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현상학의 이념을 특수교육 연구에 제대로 답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상학적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질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해석 방법이나 현상

학적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해석방법과 글쓰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후속연구에서 별도로 다루어 볼 것이다.

참고문헌

- Bae, S. S. (2012). The Qualitative Research Issue for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8(1), 1-22.
[배상식 (2012). 질적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방법'의 적용 문제. *초등교육연구논총*, 28(1), 1-22.]
- Bak, I. C. (2013). *Edmund Husserl Philosophy reform by rigorous academicity*. Paju: Salim Publisher.
[박인철 (2013). *에드문트 후설 엄밀한 학문성에 의한 철학의 개혁*. 파주: (주)살림 출판사.]
- Bak, S. E. (2013). *Break through the Crisis of Phenomenology and Philosophy-Husserl & Heidegger*. Paju: Kim-yeongsa.
[박승억 (2013). *현상학, 철학의 위기를 돌파하라-후설&하이데거*. 파주: 김영사.]
- Byeon, E. J., & Park, B. D. (2018). Exploring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with ADHD Tendencies Participating in Sand Play Activ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0(2), 117-145.
[변은지, 박병도 (2018). 모래놀이 활동에 참가하는 ADHD 성향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20(2), 117-145.]
- Park, E. S., & Lim, K. W. (2017).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Industry Field Training Conducted for the Special Classes in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2(3), 111-134.
[박은수, 임경원 (2017).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그 의미. *특수교육학연구*, 52(3), 111-134.]
- Park, J. Y. (2017).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arent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ceiving Home-based Itinerant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8(2), 151-167.
[박종영 (2017). 지적장애 학생 학부모의 재택순회교육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8(2), 151-167.]
- Bark, M. H., & Kang, S. J. (2012). Analysis of the tren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in Korea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5(2), 205-226.
[박미화, 강성중 (2012).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지체중복 건강장애연구*, 55(2), 205-226.]

- Heidegger, M. (1979). *Sein und Zeit*. Translated by Lee, K. S.(1997). Seoul: Kkachigeulbang.
[Heidegger, M. (1979). *Sein und Zeit*. 이기상 옮김(1997).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글방.]
- Heidegger, M. (2000). *Zur sache dis Denkens*. Translated by Moon, D. K. & Shin, S. H.(2008). Seoul: Gil.
[Heidegger, M. (2000). *Zur sache dis Denkens*. 문동규 · 신상희 옮김(2008). **사유의 사태로..** 서울: 도서출판 길.]
- Hong, D. G., Jeon, B. J., & Yoo, D. H. (201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Eating' Experienced by Patients with Dysphagia Caused by Strok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3), 379-393.
[홍덕기, 전병진, 유두한 (2018). 뇌졸중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먹기'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3), 379-393.]
- Husserl, A. (1976).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Translated by Lee, J. H.(1997). Paju: Hangilsa.
[Husserl, A. (1976).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이종훈 옮김 (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파주: 한길사.]
- Jin, K. J., & Son, Y. S. (2005).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as the Research Methodology of Speci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enomenological and Hermeneutic Education Practice*, 3(1), 5-27.
[진권장, 손영수 (2005). 특수교육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과 해석학. **현상학·해석학적 교육연구**, 3(1), 5-27.]
- Jo, K. J. (2004). *The world of the body, the body of the world: Merlot-Ponty's strong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Seoul: Ihagsa.
[조광제 (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학사.]
- Jung, D. H., & Lee, H. J. (2019). Analysis and examination on phenomenology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4(2), 259-284.
[정대현, 이현정 (2019). 유아교육분야 현상학 연구 분석 및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259-284.]
- Kang, M. R. (2011). *Body, Subject, Power: Merloponi and Foucault's body concept*. Seoul: Ihagsa.
[강미라 (2011). **몸 주체 권력: 메를로퐁티와 푸코의 몸 개념**. 서울: 이학사.]
- Kim, H. R. (2007). An Inquiry into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Husserl on the Education Research for Multiple and Severe Handicapp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0(1), 181-200.
[김혜리 (2007). 중도 중복장애아 교육연구에 있어서 훗설(Husserl)의 현상학적 방법론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고찰. **중복·지체부자유아연구**, 50(1), 181-200.]
- Kim, H. R. (2013). Dialogue between Behaviorism and Merleau-Ponty Phenomenology on Support for Problem Behaviors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5(4), 445-464.

- [김혜리 (2013).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행동주의와 메를로-퐁티(Merleau-Ponty) 현상학과의 대화.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445-464.]
- Kim, H. R. (2015). Inquiry of Phenomenological model as Alternative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7(4), 1-22.
- [김혜리 (2015).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으로서 현상학적 모형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17(4), 1-22.]
- Kim, K. M. (2017). *A Study on Inclusive Education Practitioners'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with Relations : With a Focus on the Situations of Inclusive Education in Kindergartens*. Doctoral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김경민 (2016). *통합교육 종사자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유치원 통합교육의 사례로부터*.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Kim, S. A. (2005). The Task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on Diagnosis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1), 147-176.
- [김성애 (2005). 현상학적 입장에서 본 특수교육교사의 (중증)발달장애아 진단 및 교육적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147-176.]
- Kim, S. A. (2007). A Study on the Ethic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on the Husserl's Perspectiv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1), 405-423.
- [김성애 (2007). 후설 현상학에 나타난 정신지체 아동 윤리성 내재 - 정신지체 아동의 자발적 행동관리 가능성에 관하여 -.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1), 405-423.]
- Kweon, H. Y., & Lee, O. I (2019). The Meaning of Experiences from Instructional Modification on the Teaching of Korean Language Experienced by the Second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4(2), 59-99.
- [권희연, 이옥인 (2019). 중등 특수교사들의 국어과 교수적 수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통합교육연구*, 14(2), 59-99.]
- Lee, K. H. (2007). Phenomenology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A mode of dialectic study between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the phenomenon. *Anthropology of Education*, 10(2), 41-64.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Lee, N. I. (2004).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d Heidegger's hermeneutic phenome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ulture Institute.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Lee, N. I. (2010). Phenomenological Pedagogy.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7, 127-158.

- [이남인 (2010). 현상학적 교육학. **교육철학연구**, 47, 127-158.]
- Lee, N. I. (2012). Phenomenological Reduction and the Future of Phenomenology.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54, 89-121.
- [이남인 (2012).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현상학적 환원의 현상학”을 위한 하나의 기여. **철학과 현상학 연구**, 54, 89-121.]
-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Paju: Hangilsa.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 Lee, N. I. (2019).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Reviewer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1), 1-14.
- [이남인 (2019). 현상학적 질적연구 심사자를 위한 “현상학과 질적연구”. **질적연구**, 20(1), 1-14.]
- Lee, S. J.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ing in Special Education - oriented on the educational studies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7(1), 199-215.
- [이숙정 (2005). 특수교육학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징: 중증장애 아동 교육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아동연구**, 7(1), 199-215.]
- Lee, W. H. (2017). *Ontological Thought for the Life and Educa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octoral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이원희 (2017). **자폐성 장애아 부모의 삶과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Lee, W. H., & Kwak, S. C. (2015). Analysis of the Trend and Tasks in Qualitative Research about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2005-2014.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1), 261-290.
- [이원희, 광승철 (2015).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동향분석 및 과제: 2005~2014년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1), 261-290.]
- Lee, W. H., & Kwak, S. C. (2017). Ontological Thought for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Life World: Focusing on the Lived-Experience of Parents of Autistic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2(3), 161-192.
- [이원희, 광승철 (2017). 생활세계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 자폐성 장애아 부모의 체험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2(3), 161-192.]
- Lee, W. H., & Kwak, S. C. (2018). Ontological Meaning of Special Education through Experience of Parents of Autistic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1), 105-135.
- [이원희, 광승철 (2018). 자폐성장애아 부모의 체험을 통한 특수교육의 존재론적 의미. **특수교육학연구**, 53(1), 105-135.]
- Lee, W. H., Yang, S. K., & Kwak, S. C. (2019).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Teaching Profession Through the Life World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with a Physical Disability. *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2(4), 35-66.
- [이원희, 양승국, 광승철 (2019). 지체장애가 있는 한 특수교사의 생활세계를 통한 교직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4), 35-66.]

- Seo, Y. J., & Lee, D. S. (2013a). Analysis on the qualitative studies with teacher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methodological criterions for qualitative stud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5(2), 215-243.
[서유진, 이동성 (2013a). 장애학생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분석: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준거에 기초하여. **특수아동교육연구**, 15(2), 215-243.]
- Seo, Y. J., & Lee, D. S. (2013b).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ical adequacy of qualitative stud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5(1), 399-430.
[서유진, 이동성 (2013b). 학령기 장애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특성 및 연구방법론적 준거 충족도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399-430.]
- Shin, A. J., & Kim, Y. S. (2017). Research on the Disability Acceptanc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4), 115-141.
[신애자, 김용수 (2017). 중도(中途)지체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 경험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1(4), 115-141.]
- Shin, H. J., & Chung, D. Y. (2016). The Analysis of Meaning of Delayed School Entry Experiences through Retrospection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3(2), 174-197.
[신혜정, 정동영 (2016). 장애아동 부모의 회고를 통한 자녀 취학유예 경험의 의미 분석. **특수교육연구**, 23(2), 174-197.]
- Shim, Y. J., & Lee, M. W.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Bibliotherapy Program Experiences in Rehabilitation Fac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2), 1-29.
[심유지, 이명우 (2017). 사회복지시설 조현병 환자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1-29.]
- Song, I. A., & O. M. S.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such as Physical Disorder/Brain Lesion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449-471.
[송인애, 오민석 (2019).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449-471.]
- Thévenaz, P. (1966). *De Husserl á Merleau-Ponty: Qu'est-ce que la phénoménologie?*. Translated by Kim, D. K.(2011). Seoul: Geulimbi.
[Thévenaz, P. (1966). *De Husserl á Merleau-Ponty: Qu'est-ce que la phénoménologie?*. 김동규 옮김 (2011).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서울: 그린비.]
-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Translate by Shin, K. L.(2000). Seoul: Hyeonmunsa.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옮김(2000).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Won, K. J., & Lee, B. I.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eer-relationship Experience of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1), 87-118.

[원길재, 이병인 (2019). 장애유아의 또래 관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특수교육 연구**, 19(1), 87-118.]

Yang, H. R. (2003). *Conversation with Phenomenology*, Seoul: Seogwangsa.

[양해림 (2003). **현상학과의 대화**. 서울: 서광사.]

Yu, H. R. (2005).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 Researching the Childhood Education: Its History and Future. *Anthropology of Education*, 8(1), 57-90.

[유혜령 (2005). 아동교육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역사와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8(1), 57-90.]

<국문 초록>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한 방향 탐색

이 원 희

[목적]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이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수교육분야에 다양한 연구 형태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특수교육분야에서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 및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방법]**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질적연구 총 53편을 선정하여 연구주제, 연구목적, 철학적 배경, 방법론적 배경, 자료수집,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먼저 현상학의 이론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특수교육 현상의 의미를 탐색하거나 지원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현상학의 철학적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4편에 불과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실시한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자료수집은 주로 면담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자료분석은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 특수교육분야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현상학의 철학적 지향을 바탕으로 연구주제와 목적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주제어 : 특수교육, 현상학, 현상학적 질적 연구, 철학적 배경, 방법론

논문 접수(Received): 2020. 05. 08. / 심사 시작(Examined): 2020. 05. 08. / 게재 확정(Accepted): 2020. 06. 08.